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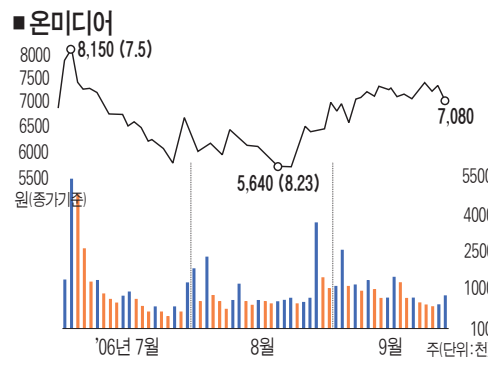


메리츠증권 정중환 광주지점장은 온미디어와 성우하이텍을 추천했다. 정 지점장은 인터넷TV와 DMB, 와이브로 등 콘텐츠가 필요한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어 한국의 대표적 콘텐츠 제공업체인 온미디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납품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유럽진출을 강화하고 있어 기아차와 현대차의 유럽진출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상승세 탄 콘텐츠 제공업체 기아車 유럽진출 최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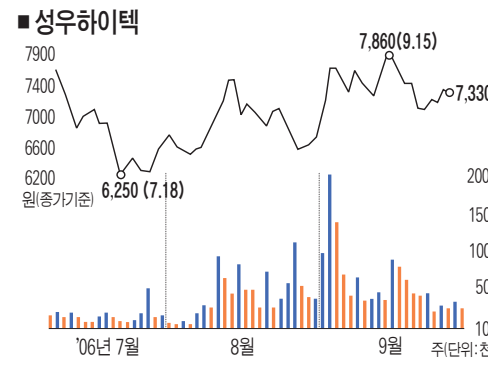
■ 온미디어



3개의 PP(프로그램공급자)사와 4개의 SO(종합유선방송)사를 보유한 오리온계열의 미디어 기업으로 7월 3일 상장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내 점유율이 높은 PP사와 SO사를 자회사로 확보하고 있어 관련업체간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시너지효과는 인터넷TV와 DMB, 와이브로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광통신망 등 대용량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는 점도 온미디어에게 긍정적이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좁힐 수 있는 신규 콘텐츠 확보를 통해 케이블TV 점유율 상위 3대 부문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드라마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5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외국인지분 3천785만주의 매물화 여부도 지켜보아야 한다.

■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업체로 차체 바디부품과 범퍼레일을 주 생산품종으로 하고 있다. 범퍼레일의 경우 경쟁사없이 현대차의 전 차종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등 현대차로의 독점적 납품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현대차가 중국·인도·유럽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현대차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여기에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종시장 진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M대우에도 경승용차인 마티즈 부품납품을 진행하고 있어 타 차종으로의 부품공급 확대 가능성도 높다.

바키아 공장 납품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제조원가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기아차 입장에서도 선도적인 기술과 해외공장 양산 경험이 있는 성우하이텍에 대한 신뢰도가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2년 현대차의 중국진출로 독자적인 납품 수혜를 누려오다 경쟁사들이 중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독점구조가 사라졌듯이 타 시장에서의 경쟁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9월 수출 사상 최대 299억 3,000만 달러

전년 동기비 22.1% 증가

추석연휴를 앞둔 업체들의 수출물량 확대로 9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1년10개월 만에 최대치인 22.1%를 기록,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299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1%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8% 증가한 279억 달러였다.

9월 수출은 자동차 수출이 파급효과를 나타내며 수출물량 확대로 97.0%나 늘어난 가운데 철강(38.7%), 석유화학(36.1%), 반도체(23.6%) 등의 수출이 국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LCD패널 수출은 패널가격 변동으로 78.3%나 늘어난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유가하락으로 29.7%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둔화됐다.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원유수입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속광물, 석유화학제품 등 기타 원자재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5.9%, 자본재수입도 항공기, 반도체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 수입이 늘어나면서 28.8%, 소비재는 1차산품과 경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38.9%씩 각각 크게 늘었다.



“우유를 마시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지난달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도전! 우유 골든벨’, 우유 무료시음,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 등 우유 소비촉진행사를 가졌다.

실업자 줄었는데 대졸 실업자는 급증

통계청, 1~8월 집계

올해 들어 전체 실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대졸 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실업자 수는 월평균 85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1만1천명에 비해 수로는 5만8천명이, 비율로는 6.4%가 줄었다. 이 기간 실업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는 월평균 14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16만1천명보다 2

만명(12.4%) 줄었고, 고교 졸업자는 43만명으로 작년의 48만2천명보다 5만2천명(10.8%) 감소했다.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실업자는 월평균 28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26만8천명보다 1만3천명(4.9%) 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문대 졸업 실업자는 11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12만2천명에 비해 9천명(7.4%)이 줄어든 반면 대학과 졸업 이상 실업자는 16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14만7천명보다 2만1천명(14.3%)이나 증가했다. 이는 예년과 달리 고학력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가짜 실업자’도 11%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7천128명으로 작년 동기의 6천409명에 비해 719명(11.2%) 증가했다.

/연남뉴스

한우 사육두수 7년래 최대 소값 하락 우려

한우(육우 포함) 사육두수가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산지가격의 하락세가 우려되고 있다. 1일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기별 가축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초 기준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모두 202만1천마리로 3개월전보다 6만2천마리(3.2%) 증가했다. 이는 1999년 9월 209만4천마리 이후 최대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시점인 2003년 12월 148만마리에 비해서는 36.6%나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암소(250kg) 산지가격은 지난 6월 334만원에서 9월 현재 324만원으로 3%(10만원) 하락했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3년 3월 133만3천마리까지 줄어든 뒤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이후 빠른 속도로 늘었다. 농림부는 “일단 사육농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그러나 사육두수가 있는 만큼 당분간 사육두수가 좀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9월8일 30개월미만 소의 빼임을 살코기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가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가공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 등이 살코기에 묻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느라 미국내 수출 작업장과 국내 수입업체들이 아직 선적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긴 추석연휴 ‘연체’ 조심

월 초에 이자 납입·결제 고객 대금 미리 입금해야 피해 없어

“추석 연휴 때 대출 이자와 카드대금 결제 잘 챙기세요” 은행 대출의 이자 납입일이나 카드대금 결제일이 월초인 고객들은 이번 추석을 전후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에 2일과 4일 등 ‘샌드위치 데이’가 끼여 있기 때문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인 5~8일 사이에 결제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인 9일로 연기되나 2일과 4일이 결제일인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개인 고객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업 대출의 경우 4번 이상 연체하면 하루 초과시에도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당수 기업이 지난 주말부터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샌드위치 데이에 있는 결제일을 놓쳐 연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또 결제일이 추석 연휴 사이에 있는 고객들도 긴 연휴 탓에 9일 결제하는 것도 잊을 수 있다며 미리 대금을 입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거래 은행이나 카드사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로 결제일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제일을 챙기는데 도움이 된다. 연휴 기간에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서 대금을 입금할 수 있다.

/연남뉴스

도공 “고속도로 경제효과 年 139조”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운영중인 23개 노선 2천850km의 고속도로로 인해 연간 139조원의 비용절감 및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절감된 사회·경제적 비용 139조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GDP의 1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차량 1대당 효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00여만명의 비용이 절감되고 하루 84분의 통행시간, 5.2km의 주행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노선별 편익은 경부선이 13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동선 6조7천억원, 서해안선 4조원, 서울외곽순환선 3조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남뉴스

디지털TV 가격 1년 새 42% 하락

LCD TV와 PDP TV 등 디지털TV의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최고 42%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뱅크와 업계에 따르면 HD급 LCD TV의 32인치 평균가격은 올해 3분기 136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218만2천원보다 37.7% 떨어졌다. 32인치 HD급 LCD TV의 가격은 작년 4분기 195만2천원, 올해 1분기 172만9천원, 2분기 153만3천원 등 분기별로 평균 약 1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0인치와 42인치 HD급 LCD TV의 가격은 작년 3분기 409만8천원에서 올해 3분기 235만원으로 42.7%나 급락했다. PDP TV의 경우에도 42인치 HD급의 가격은 작년 3분기 328만원에서 올해 3분기 226만원으로 31.1%, 50인치 HD급은 작년 3분기 501만원에서 올해 3분기 358만원으로 28.5% 각각 떨어졌다.

/연남뉴스

모기지보험 내년 상반기 출시

내집마련 쉬워질 듯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기지보험이 선보인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순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모기지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 등은 판매 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퀘위스파이낸셜은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보험업에

비허가를 신청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정부의 모기지보험 도입 방안은 이 보험에 가입시 비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자도 가능하고 대출금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게 된다.

/연남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Job Category, Salary & Benefits, Start Date, Interview Date, Contact Info.

로도복권 (제200회)

Table with 3 columns: Lottery Number,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Includes a grid of numbers and a summary row.

팝콘복권 (제23회)

Table with 3 columns: Rank, Amount (10억, 5억, 1천만, 1백만, 1만, 2천, 1천), Winning Number. Summary row at the bottom.